

“와~ 성경이 살아있다!”

See with Me Bible
The Bible Told in Pictures

데니스 존스(Dennis Jones)가 그린
『와! 성경이 살아있다!』는
스물네 가지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그림성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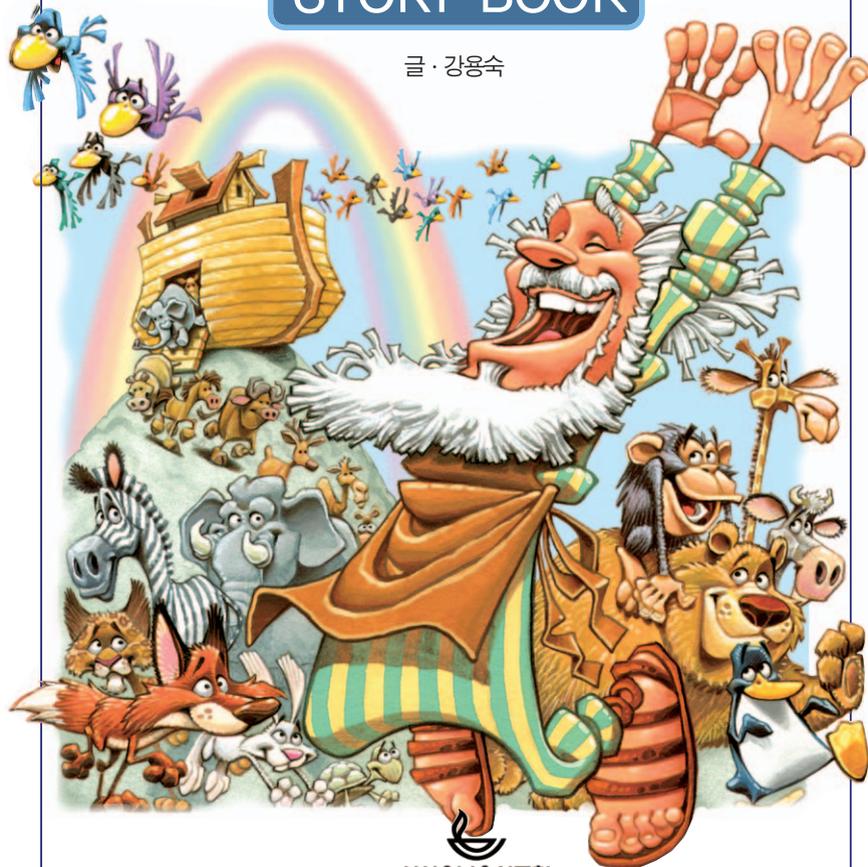


와! 성경이 살아있다!

부모를 위한 그림 이야기

STORY BOOK

글 · 강용숙



왜 성경이 살아있다!

부모를 위한 그림 이야기

STORY BOOK

글·강용숙



구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신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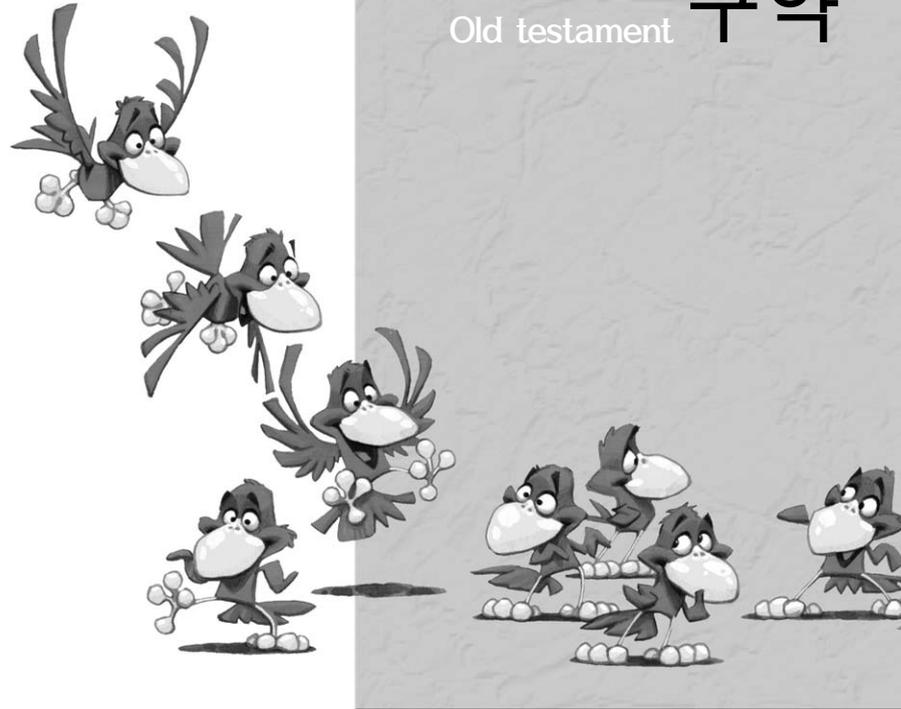
이책을 읽기 전에 잠깐	4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6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7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9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11
위대한 탈출	14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16
여호수아와 여러고 전투	17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19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21
물고기 배 속의 요나	24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28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랐어요	30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31
예수님의 생애	32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33
착한 사마리아인	34
잃어버린 어린양	36
열 명의 문둥병자	38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	40
예수님과 아이들	43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44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46
고기 잡는 기적	47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49



이 책을 읽기 전에 잠깐!

부모님이 어린이에게 이야기를 들려 주시기 전에 먼저, 어린이가 그림을 자세히 관찰하고 자기의 생각을 말할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 그 후, 성경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 상상력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와! 성경이 살아있다!』는 부모님이 어린이에게 성경이야기를 들려 주고, 어린이가 직접 그림을 보면서 스스로 이야기를 꾸밀 수 있게 돕는 책 이랍니다. 그러므로 어린이가 맘껏 상상력을 발휘하여 성경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기회를 주세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이 작은 책자를 적절히 활용하셔서 부모님이 성경이야기를 잘 풀어 설명해 주세요.



Old testament 구약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10-23쪽)



|배경 내용| 맨 처음 세상은 온통 깜깜하기만 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 없는 아주 조용하고 텅 빈 공간이었지요. 하나님은 그곳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갖가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열매 맺는 과 일나무를 자라게 하셨어요. 넷째 날은 낮을 밝혀 줄 해와, 밤을 밝혀 줄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은 온갖 물고기와 새들을 만드시고 '새끼들을 많이 낳아 번성하라'고 축복하셨어요. 여섯째 날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갖가지 들짐승과 가축과 땅위에서 기어 다니는 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매우 만족하셨답니다. 어두움을 밝혀 주는 해와 달과 별, 출렁이는 바닷물 속에서 뛰어노는 갖가지 물고기들, 푸른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새들, 녹색 초원을 뛰어다니며 노는 짐승들의 모습은 천국처럼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은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릴 사람을 만드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흙으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정성스럽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지내는 아담이 무척 쓸쓸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잠자는 사이에 그의 갈비뼈를 하나 뽑아 여여쁜 여자를 만드셨어요. 잠에서 깨어난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고 기뻐하며 여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손수 만드신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많이 낳아 번성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생물들을 먹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10-11쪽 맨 처음 세상은 이렇게 깜깜했대요.
- 12-13쪽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 생겨라!"고 말씀하시며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고
- 14-15쪽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낮과 밤을 만드셨어요.
- 16-17쪽 하늘과 땅도 만들고 땅위에는 크고 작은 나무와 예쁜 꽃들을 만드셨어요. 나무 이름들과 꽃 이름을 말해 볼까요?
- 18-19쪽 빛이 없는 세상은 어떨까요? 낮에는 해가, 밤에는 달과 별이 세상을 밝혀주어 무섭지 않지요?
- 20-21쪽 하늘에는 어떤 새들을 만드셨을까요? 바다에는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까요? 숲에는 어떤 짐승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만드신 거예요.
- 22-23쪽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잘 돌보라고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24-37쪽)



|배경 내용|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두시고 동산을 돌보고 지키라 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모두 마음껏 먹어도 된다고 하셨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면서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와서 속삭이지 뭐예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아.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은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뱀의 이야기를 들은 여자의 눈에 선악과는 더욱 탐스럽고 먹음직스러워

보였지요. 여자는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고 여자와 남자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아담에게는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 먹고 살도록 했고, 하와에게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으며 평생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 하는 것이었지요. 또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24-25쪽 **아담:** 하와!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돼. 알았지?
- 26-27쪽 **뱀:** 자꾸 하와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뱀: 하와야, 내가 좋은 것 가르쳐 줄까?
- 28-29쪽 **뱀:** 저 선악과 맛있게 생겼지? 한 개만 먹어 봐.
하와: 안 돼! 그걸 먹으면 죽는대어.
뱀: 무슨 소리!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겁나서 그러는 거야.
하와: 흥~ 불수록 맛있어 보이는 걸.
- 30-31쪽 **하와:** 이 많은 것 중에 하나 슬쩍 먹어도 하나님이 모르겠지?
뱀: ㅎㅎㅎ~ 옳지! 옳지! 잘한다.
- 32-33쪽 **하와:** 자기야, 이거 먹어 봐. 정말 맛있어.
아담: 갑자기 세상이 더 잘 보여. 그런데... 우리가 벌거벗었잖아?
- 34-35쪽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으니 너희는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없다.

36-37쪽 **동물들:** 엉엉, 어리석은 사람들! 뱀의 꼬임에 빠져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쫓겨나는구나.

노아가 방주를 지었어요 (38-59쪽)



| 배경 내용 |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쫓겨 난 후, 많은 세월이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또한 악한 짓을 일삼으며 폭력으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것을 몹시 후회하셨죠. 하나님은 사람과 모든 생물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땅 위에서 쓸어버릴 계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아도 죄인들과 함께 멸망시킬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배를 만들라고 하시면서 모양과 크기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셨지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산 위에다 배를 만드는 노아가족을 미쳤다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참으며 배를 만들었죠. 배가 다 완성되자 하나님은 각종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 씩 배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홍수가 끝난 후, 다시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마지막으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 문을 닫자, 하나님은 40일 동안이나 쉬지 않고 비를 내리게 했어요. 땅위에 코로 숨을 쉬는 생물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높은 산까지도 물에 잠기고 말았어요. 그러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생물들은 매우 안전했어요. 40일이 지난 후,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시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았어요. 150일 동안이나 땅을 뒤덮고 있던 물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땅이 다 마른 것을 안 노아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은 밖으로 나왔어요. 노아는 맨 먼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번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축복하셨죠.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보여 주셨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38-39쪽 **노아:** 쓱쓱 쓱쓱~ 배를 만들자.
- 40-41쪽 **사람들:** 하하하, 멀쩡한 날에 웬 배야?
노아: 하나님에 앞으로 큰 홍수가 날테니 배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
- 42-43쪽 **사람들:** 노아 영감 머리가 돈 것 아니야? 배를 산 위에서 만들다니...
노아: '똑딱 똑딱' 튼튼한 배를 만들어야지.
- 44-45쪽 **짐승들:** 애들아, 노아 할아버지가 산 위에서 무얼 만드는지 가보자.
- 46-47쪽 **짐승들:** 와아, 배잖아? 나도 타 봤음 좋겠당~
- 48-49쪽 **노아:** 애들아, 어서 안으로 들어오렴.
짐승들: 정말요? 야, 빨랑빨랑 들어가.
- 50-51쪽 동물들이 다 타자 배의 문이 닫혔어요.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더니 천둥 번개가 치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물은 넘치고 넘쳐 산을 덮고 배가 물에 떠다니기 시작했어요.
- 52-53쪽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은 홍수로 모두 죽었는데 배 안은 그저 안전하고 평화롭기만 해요.
- 54-55쪽 노아 할아버지는 배 안에서 많은 짐승들을 돌보느라 실 틈이 없네요.
- 56-57쪽 **노아:** 비둘기야, 밖에 나가 비가 그쳤는지 알아보렴. 호오, 올리브 잎 사귀를 물고 온 것을 보니 땅에 물이 다 말랐군.
- 58-59쪽 **노아와 짐승들:** 와, 새로운 세상이다.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요 (60-75쪽)



| 배경 내용 |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다 죽고 난 후였어요. 요셉의 후손들이 자녀를 많이 낳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백성보다 수가 더 많아졌지요. 그 때 옛날 유명했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 이집트 사람들의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된 일을 시킬 뿐만 아니라 산파를 시켜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어요. 모세의 부모는 모세가 태어나자 석 달 동안이나 몰래 숨겨서 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큰 풀들 사이에 두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는 얼마쯤 떨어진 곳에서 아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때 마침 이집트 왕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나왔다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았어요. 공주는 아기를 데리고 궁으로 돌아갔고 땅을 보고 있던 누이는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를 했지요.

공주는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모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호화롭게 살며 많은 학문도 익혔지요. 그러나 마음속에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밖에 나갔다가 자기 백성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 맞는 것을 보았어요. 모세는 분한 생각이 들어서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며칠 후, 그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것을 보았죠. 모세는 싸움을 말리다가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듣고 탄로 날까봐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요. 미디안에

서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 그의 딸과 결혼을 한 모세는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며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지요. 그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형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갔어요. 모세는 파라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해 달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파라오가 듣지 않자 하나님은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는데 이집트 미술사도 같은 기록을 보였어요. 두 번째는 개구리 떼가 온 땅에 들끓는 것이었어요. 파라오는 잠시 허락하는 듯하더니 다시 마음이 완고해졌지요. 세 번째는 이가 사람과 가축을 괴롭히는 것이었지만 파라오는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네 번째는 파리 떼들이 몰려왔어요. 다섯 번째는 가축들이 악질에 걸려 다 죽게 되는 것이었어요.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의 몸에 종기가 나게 했죠. 일곱 번째는 갑자기 우박이 쏟아져 식물들을 다 죽게 했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천지를 뒤덮어 모든 것을 갉아 먹었는데 파라오는 놀라서 남자들만 남기고 가라면서 죽음을 면하게 해 달라고 하더니 이내 마음을 바꿨지요. 아홉 번째는 밤이고 낮이고 3일 동안 어두움 속에 뒤덮여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파라오는 양과 소만 남기고 가라고 하더니 다시 마음이 바뀌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열 번째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것들이 모두 죽은 것이예요.

그동안 마음이 변덕스럽게 왔다갔다 하던 파라오는 열 번째의 재앙을 당하고서야 두 손을 들고 말았어요. 파라오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자기 땅에서 나가도록 허락했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60-61쪽 공주:** 어머, 예쁜 것! 이 아기는 분명 이스라엘 아기일거야.
모세의 누이: 설마 내 동생을 죽이진 않겠지?
- 62-63쪽 공주:** 아기 이름을 물에서 건졌으니까 '모세' 라고 해야지.
모세는 파라오 왕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무럭무럭 자라 어른이 되었어요.
- 64-65쪽** 하루는 모세가 왕궁 밖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매를 맞으며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모세: 내 나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고생하잖아?
- 66-67쪽** 결국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누리던 왕자의 혜택을 모두 벗어던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모세: 파라오가 날 잡으러 오기 전에 빨리 여기를 떠나야 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언제나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백성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하며 세월을 보냈어요.
모세: 참, 이상하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고 그대로 있지?
- 68-69쪽** 그때 불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하나님 음성: 모세야! 네 있는 곳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가서 고통 받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해 내어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파라오 왕에게 갔어요.
모세: 파라오 왕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 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 70-71쪽** 파라오 왕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을 받고 이집트 백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요. 열 가지 재앙: 나일강물이 피로 변함, 개구리 떼의 습격, 먼지가 이로 변하여 사람과 짐승의 몸 속에 생겨 남, 파리 떼의 공격, 가축들의 죽음, 사람과 가축의 몸에 종기가 남.
- 72-73쪽** 돌맹이 같은 우박이 쏟아짐, 땅과 하늘이 메뚜기 떼로 뒤덮이고, 3일이나 계속 어두움에 뒤덮이고, 끝내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은 뒤에야

파라오: 에이, 꼴도 보기 싫다. 제발 내 앞에서 다 사라져 버려.

74-75쪽 이스라엘 백성: 아호! 드디어 탈출이다! 이젠 우리 자유의 몸이다.

위대한 탈출 (76-95쪽)



| 배경 내용 | 파라오의 손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나왔지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여 백성들이 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둡거나 춥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종노릇하던 백성들을 내 보내다니 왜 그런 바보짓을 했을까? 어서 다시 잡아 와야겠다.”

파라오는 말과 전차를 모는 군인들과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기 시작했어요. 한편, 홍해 곁에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군대가 뒤쫓아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무서워 소리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지요.

“이집트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 왜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는 거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 줄 테니 걱정 말라고 사람들을 안심시켰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했죠. 모세가 그대로 하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홍해의 거친 바다가 둘로 갈라지면서 마른 땅이 드러났어요. 백성들은 큰 물이 벽을 이루고 있는 바다가운데를 건넜어요. 파라오의 군인들이 뒤쫓아 바다로 들어왔지요. 그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대로 하자 갈라져 있던 바닷물이 합쳐져 뒤따르던 이집트 군인들을 덮

어 버렸어요. 수많은 이집트 군대는 바다 속에 빠져죽고 말았지요.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춤을 추며 기적을 일으켜 자신들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76-77쪽 이집트의 파라오에게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또 하나의 큰 문제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이구, 큰일 났다. 우리 앞에 가로막힌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가지?

78-79쪽 그때 이집트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뒤쫓아왔어요.

이집트 군인들: 빨리! 빨리 달려라. 저기 놈들이 보인다.

80-81쪽 이스라엘 백성: 압사새! 앞에는 바다요, 뒤로는 이집트 군대야.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82-83쪽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음성: 모세야! 네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가리켜라! 그럼, 바다가 갈라질 것이다.

84-85쪽 이스라엘 백성들: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바닷물이 둘로 갈라지고 있어.

86-87쪽 이스라엘 백성들: 우와, 놀라운 일이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잡히기 전에 어서 뛰자!

88-89쪽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너자 이집트 군인들도 말과 전차를 몰며 뒤쫓아 바다로 들어갔어요.

이집트 군인들: 흐흐흐~ 우리가 못 따라 갈 줄 알고?

90-91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다 건너 후에 하나님이 갈라진 바닷물을 다시 하나로 합쳐 주셨어요.

이집트 군인들: 이, 이상하다? 무슨 바닷물이 이렇게 무섭게 춤을 추지?

92-93쪽 바닷물이 무섭게 불어나자 이집트 군인들과 말들이 바다에서 도망치려고 애썼지만 모두 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이집트 군인들: 어푸, 어푸, 나 수영 못하는데...

말들: 히잉, 나도 헤엄 못 치거든.

94-95쪽 모세와 백성들: 와! 우리 하나님이 최고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집트 군인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40년 동안의 광야생활 (96-97쪽)

|배경 내용 |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했어요. 40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이나 돌고 돈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불신 때문이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달콤한 만나를 매일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아우성쳤죠. 그러자 하나님은 매일 메추라기를 내려 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불평하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어요.

시내 산에서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우상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온 모세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돌판을 내던져 두 조각이 나 버리고 말았어요. 모세는 금송아지를 불로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빵아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는 사건도 있었어요. 모세가 살려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구리 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약속을 맺고 말씀(언약)으로 함께하시며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를 돌고 돌아 40년 후에야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호수아와 여리고 전투 (98-111쪽)

|배경 내용 |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죄로 가득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을 명하시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도록 지시했어요. 그것은 하루에 한 번씩 6일 동안 조용히 여리고 성을 도는 것이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다가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면 모두 큰 함성을 지르라고 했어요. 제사장 일곱 명에게는 숫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가지고 언약궤 앞에서 행군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성을 일곱 바퀴 돌며 나팔을 불라고 하셨어요.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수아가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어요.

마지막 날 제사장들이 나팔을 길게 불자 백성들은 천지가 떠나가라 고향을 쳤지요. 고향소리와 함께 그 높고 첩벽같은 여리고 성이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어요. 창과 칼로 피 흘리며 싸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 기적을 보여 주신 것이예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98-99쪽 **이스라엘 백성들:** 카아! 저 높고 튼튼한 성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야?
- 100-101쪽 **하나님 음성:** 애들아, 너희는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군하여라.
- 102-103쪽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시키는 대로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성을 돌았어요.
여리고 군인들: 재네들은 뭐하는 놈들이지? 왜 자꾸 성을 뱅뱅 도는 거야?
- 104-105쪽 **첫날도, 둘째 날도, 셋째 날도** 이스라엘 백성은 조용히 걷기만 했어요. 그렇게 6일 동안이나 말없이 성을 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쏠! 절대 말하지 마, 우리 대장이 조용히 걸으랬어.
- 106-107쪽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 오늘이 칠일 째야. 이제 나팔을 불자. '뿌우~ 뿌우~'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자 그동안 꿈쩍도 안하던 성벽이 갈라지고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여리고 군인들: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고함소리에 성이 무너지고 있어.
- 108-109쪽 **여리고 군인들:** 오야악!! 사람 살려!! 우린 다 죽었다!!
- 110 -111쪽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만세!!!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못하는 일이 없으셔.
참새: 하하하 그걸 이제 알았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112-129쪽)



| 배경 내용 |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싸움을 걸어왔을 때였어요. 블레셋에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 골리앗 대장이 있었죠. 골리앗은 매일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와 “이 쥐새끼 같은 놈들이! 나 하고 싸울 놈 있으면 어서 나와라. 만일 내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큰소리를 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웃곤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며 숨기에 바빴죠.

그 때 목동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다윗이 형들이 먹을 음식을 가지고 가서 보니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욕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이 분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어요. 왕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말렸지만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굽히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사자나 곰도 때려눕힌 적이 있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다윗의 확신에 찬 말에 사울 왕은 허락을 했지요.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튼튼한 갑옷을 입혔어요.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 옷이 맞을 리 없었어요. 다윗은 갑옷을 던져 버리고 시냇가에 가서 조약돌 다섯 개를 주워 골리앗에게 갔어요. 골리앗은 자기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나타난 조그만 소년을 보자 화가 나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믿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갔죠. 골리앗이 달려들 때 다윗은 물매에 돌

을 올려 던졌어요. 돌은 정확하게 날아가 거인 골리앗의 머리를 맞추었
어요. 거인 골리앗은 그 자리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그는 칼 한 번 휘
둘러 보지도 못하고 소년의 물매 돌에 맞아 죽은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
의 칼로 그의 머리를 베자 블레셋 군대는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누구도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기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다
윗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예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 112-113쪽 골리앗:** 야, 이놈들아! 어서 나와라. 나랑 붙어 보자.
이스라엘 군대: 저게 사람이야, 사자야? 으~ 천둥 같은 목소리만
들어도 무섭다.
- 114-115쪽 그 때 다윗은 싸움터에 나간 형들에게 빵과 치즈를 갖다 주라는 아
버지의 심부름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 근데, 저 괴물 같은 사람은 뭐라고 떠드는 거야?
다윗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골리앗과 싸
워서 이기고 싶었어요.
- 116-117쪽 그래서 사울 왕에게 가서 골리앗과 싸우게 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윗: 임금님! 제가 골리앗을 물리치게 해주세요. 전 사자나 곰도
잡았다고요.
왕은 다윗이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윗을 말렸어요.
- 118-119쪽 하지만 다윗이 뜻을 굽히지 않고 조르자 왕은 다윗을 자기의 군장
비로 무장시켜 주었어요.**
사울 왕: 어린 꼬마가 아주 용감하구나. 그럼 내 갑옷과 투구를 입
고 나가렴.
다윗: 난 이런 것 없어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주
시니까요.
- 120-121쪽 다윗:**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이

기게 해주세요.

다윗은 하나님께 도와 달라고 기도한 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 쓸
돌맹이를 골랐어요.

122-123쪽 다윗은 시냇가에서 돌맹이 다섯 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집어넣은 후
자기가 쓰던 물매를 손에 들고 골리앗 앞에 용감히 나아갔어요.

골리앗: 쟤 또 뭐야? 으~ 짜증난다. 웬 꼬맹이가 나한테 덤비는
거야?

124-125쪽 골리앗: 우~하하~ 이 꼬마 녀석아, 나를 무엇으로 보고 막대기 하
나 들고 나오느냐? 나를 멍멍 개로 착각한 것은 아니냐? 네가 죽
고 싶어 까부는구나?

126-127쪽 다윗: 골리앗, 꿈쩍 마라. 넌 창과 칼로 우리랑 싸우려고 하지만, 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너랑 싸울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이를 양다물고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내
물매로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맞쳤어요.

다윗: 옳! 이 물매 맛을 봐라! '피용~!'

골리앗: 으익!

128-129쪽 골리앗은 다윗이 쓴 돌맹이에 맞아 그 자리에서 펑! 하고 쓰러지고
말았어요.

다윗: 거봐! 내가 이긴다고 했잖아. 하나님이 도우시거든.

참새: 쫓쫓! 불쌍한 골리앗! 하나님은 없다고 큰소리치더니만 결국
자기가 죽고 말았군.

사자 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130-147쪽)



| 배경 내용 | 바빌로니아 다리오 왕 때었어요. 다리오 왕은 총리 세 명
을 세웠는데 다니엘은 그 중의 한 사람이었어요. 왕은 다른 총리나 총독

보다 뛰어난 다니엘에게 나라를 다 맡기려고 마음먹었어요. 이를 알고 질투가 난 다른 총독과 신하들은 다니엘을 없앨 계획을 세웠어요. 그들은 다니엘이 정해진 시간에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왕에게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 굴에 넣는 법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왕은 신하들이 하자는 대로 법을 만들어 공포했지요.

다니엘은 왕이 새 법을 만든 것을 알면서도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이스라엘 쪽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왕에게 다니엘이 왕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고 고자질을 했어요. 왕은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거센 항의에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라고 명령했어요.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던 날, 다리오 왕은 걱정이 되어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이튿날 날이 밝자 다리오 왕은 사자 굴로 달려가 다니엘을 불렀어요. 왕은 다니엘이 사자들에게 잡혀 먹히기는커녕 털끝 하나 다치지 않은 것을 보았지요. 그는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고소했던 모든 신하들을 도리어 사자 굴에 넣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했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다가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세요.

! 자녀와 그림읽기

130-131쪽 경교문: 다리오 왕 이외의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자는 사자 굴에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132-133쪽 신하들: 위대하신 다리오 왕이 지나가신다. 모두 그 앞에 엎드려

절하라.

134-135쪽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큰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한 약속을 깨뜨리지 않았어요.

신하들: 어디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보자. 울지! 딱 걸렸어, 당장 다니엘을 왕에게 끌고 가자.

136-137쪽 신하들: 임금님! 다니엘이 임금님이 명령하신 것을 듣지 않고, 다른 신에게 엎드려 기도하기에 저희가 잡아왔습니다.

138-139쪽 신하들: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으십시오.

다리오 왕: 아~ 착하고 충성스러운 다니엘을 죽이긴 싫구나.... 하지만 신하들이 저토록 반대를 하니 어쩔 수 없구나. 다니엘을 사자 굴에 넣어라.

140-141쪽 신하들: 잘 가라! 다니엘!

사자들: 오~잉? 며칠이나 굶었는데.... 밥야, 어서 오너라. 으르렁 ~으르렁!

142-143쪽 천사: 췌 사자들야, 이 사람은 너희들 밥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란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 주셨어요.

144-145쪽 사자: 우리 사자 맞니? 먹이를 앞에 놓고도 왜 이렇게 안전한 거지?

사자: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졌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잖아.

다리오 왕: 다니엘야, 너 살아 있는 거니? 하나님이 너를 구해 주셨니?

146-147쪽 다니엘: 임금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서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다리오 왕: 앞으로는 우리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자.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저 나쁜 놈들을 사자 굴에 집어넣어라.

물고기 배 속의 요나 (148-169쪽)



|배경 내용|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까지 이르렀다.”

하지만 요나는 자기가 싫어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싫었어요. 그들이 벌을 받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스페인)로 가는 배를 탔어요.

배가 출발하자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배가 부서질 지경에 이르자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에게 기도하며 배의 짐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어요. 그래도 풍랑이 멈추지 않자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을 만나게 되었는지 제비를 뽑기로 했어요. 그런데 배 밑에서 잠자고 있던 요나가 뽑혔지 뭐예요?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삼키게 하셨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삼 일 동안 지내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요나를 다시 바닷가에 뱉어 놓게 했어요.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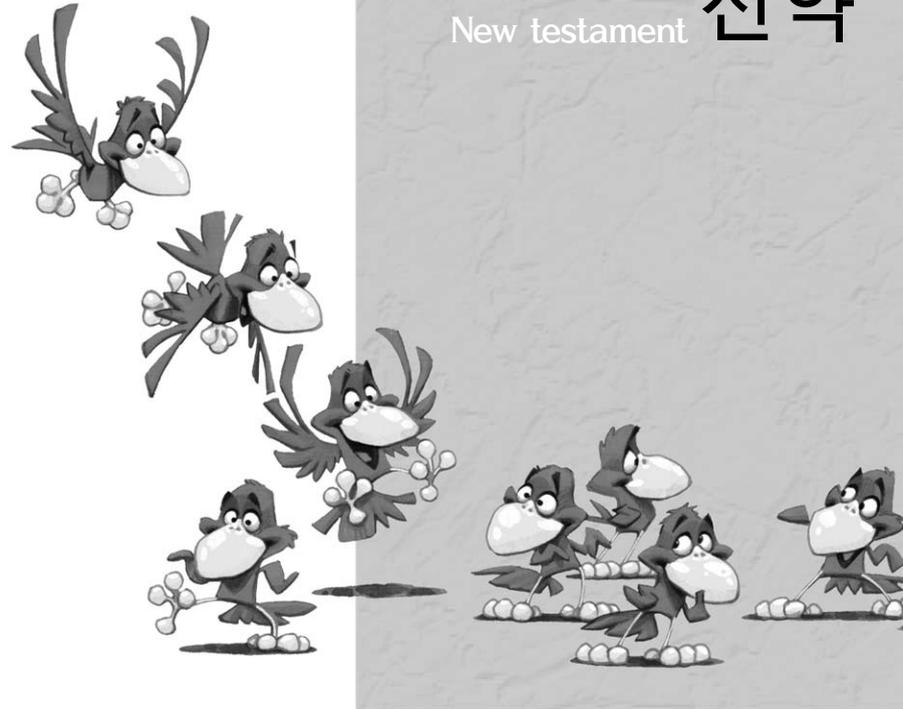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으로 들어가 그들이 죄로 인해 사십 일이 지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외쳤어요. 요나의 이야기를 들은 니느웨 왕과 백성들은 금식하며 눈물로 회개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 자녀와 그림 읽기

- 148-149쪽**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요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거예요.
- 150-151쪽** **하나님의 음성:** 요나야, 너는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그들의 죄가 너무 커서 내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쳐라.
요나: 뭐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요? 싫어요.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기 싫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데로 몰래 도망가려고 짐을 꾸렸어요.
- 152-153쪽** **선원들:** 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곧 출발합니다. 다시스로 가실 분 어서 타세요.
요나: 마침 잘 됐다.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타야지.
- 154-155쪽**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위로 큰 바람을 보내셔서 바다에 태풍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사람들: 어이구 무서워라. 사람 살려! 으악~ 이리다 우리 모두 다 죽게 생겼다! 아니, 그런데 이 난리에도 쿨쿨 자고 있는 저 사람은 누구냐?
- 156-157쪽** **사람들:** 이보시오! 당신 누구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요나: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서 하나님이 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시오.
- 158-159쪽** 바다에 파도가 점점 더 거세게 일어나자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사람들: 요나 양반, 미안하지만 죽어줘야겠소. 잘 가시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바다는 잔잔해졌고, 그 때 하나님이 준

비해 두신 큰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 160-161쪽 **물고기:** 요나야, 어서 와라. 너 오기를 기다렸단다. 꿀꺽!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삼 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뉘우쳤어요.
- 162-163쪽 **요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하겠으니 살려주세요.
하나님 음성: 물고기야! 이제 요나를 뱉어 내라.
- 164-165쪽 **물고기:** 푸우~ 요나야, 잘 가거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라. 바이! 바이!
요나: 으으, 여기가 어디야?
- 166-167쪽 **요나:** 기어코 니스웨로 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다시 기회를 주신거야. 그래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 거야.
- 168-169쪽 **요나:** 니스웨 사람들이여, 40일이 지나면 니스웨가 멸망할 겁니다. 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니스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말씀을 듣고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New testament 신약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172-195쪽)



| 배경 내용 |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은 그의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이구스도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죠. 그때 마리아는 아기를 낳 때가 다 되어 배가 몹시 불편했어요. 그들은 베들레헴에 도착하여 목을 여관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온지라 빈방이 아무 곳에도 없었어요. 요셉 부부를 본 한 여관 주인이 말했어요.

“거, 보아하니 아주머니가 몹시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다면 저기 마구간이라도 머무르시오.”

요셉과 마리아는 그곳이라도 쉴 수 있음에 감사해야 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더러운 마구간에서 가축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기를 낳고 말았지요. 그 때 들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이 환해지더니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했어요.

“다윗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났다.”

이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천사들이 사라지자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경배를 드렸어요. 이 아기가 곧 ‘예수’ 였답니다.

한편 먼 나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몇 사람들은 유난히 크게 빛나는 별을 보았어요. 그들은 그 별이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을 알려 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별을 따라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리고 궁전에 들어가 헤롯 왕에게 물었지만 그는 아기왕의 탄생을 알지 못했어요.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가 있는 마구간을 찾아냈어요. 그들은 아기 예수께 그들이 준비해 온 귀한 예물을 드

리고 경배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 자녀와 그림읽기

172-173쪽 요셉: 마리아, 황제의 명령이니 우리도 호적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갑시다.

174-175쪽 요셉: 주인 계시오? 목을 방 하나 주시오.

주인: 다른 데 가 보시오, 우리 집은 빈방이 없소이다.

요셉: 아무데라도 좋으니 쉴 곳 좀 없겠소?

주인: 어이쿠, 우리 집엔 이미 사람들이 꽉 찼답니다.

176-177쪽 똑똑똑! 똑똑똑! 요셉은 빈방을 구하러 발이 아프게 다녔지만 어디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목을 방이 없었어요.

요셉: 여보시오, 제 아내가 지금 아기를 출산해야 합니다. 제발! 방 좀 빌려 주십시오.

주인: 거참, 딱하군. 그럼… 우리 마구간이라도 묵겠소?

178-179쪽 주인: 저기 가축들과 함께 자야 하는데 괜찮겠소?

요셉: 하는 수 없지요, 여기라도 감사해야지.

180-181쪽 마리아: 요셉, 아기가 나오려나 봐요. 배가 아파요.

요셉: 크아! 큰일이군. 여보, 힘내요!

마리아는 마구간에서 귀여운 아기를 낳았고 밖에는 별들이 반짝이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해 주었어요.

182-183쪽 그 때 큰 별 하나가 예수님이 태어난 마구간을 환히 비춰 주었어요. 들에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느라 불을 켜고 있었지요.

184-185쪽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자 목자들은 깜짝 놀라며 무서워 떨었어요.

목자들: 에구머니네! 누, 누구시오?

186-187쪽 천사: 나는 여러분에게 매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천사랍니다.

저 큰 별이 비취는 곳에 가면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태어나신 그리스도 주님이 계십니다.

188-189쪽 천사의 말을 듣고 급히 마구간을 찾은 목자들은 진짜로 말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자들: 와~ 천사의 말이 정말이네. 아기 예수님! 경배 드려요.

190-191쪽 사람들을 죄 가운데서 구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박사들도 동방에서 별을 따라 베들레헴을 찾아왔어요.

192-193쪽 동방박사들: 우리를 인도하던 별이 여기서 멈춘 것을 보니 이 집인가 봐요. 똑똑똑! 계십니까?

요셉: 누구시오?

194-195쪽 동방박사들: 저희는 동방에서 구세주 예수께 경배 드리러 온 박사들입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세요.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196-199쪽)



| 배경 내용 |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처럼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의 배 속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세상의 아기들처럼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커 가면서는 밥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라나셨어요. 몸이 자라면서 지혜도 쑥쑥 자라나셨어요. 늘 바르고 착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른이 된 예수님은 어느 날 가족들을 떠났지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즉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하나님 일을 하시기 위해서예요.

요한이 세례를 주었어요 (200-207쪽)



| 배경 내용 |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대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광야에서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 속에 가득한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며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죄를 용서해 주는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인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구원자라고 말했어요.

어른이 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요단 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도 세례를 받겠다고 말했어요. 요한은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거절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시기 위해 지금은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자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며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성령 충만함으로 준비를 하셨어요.

! 자녀와 그림읽기

200-201쪽 요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예수님: 음~나도 죄인의 자리에 함께 서서 세례를 받아야겠군.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내가 짊어지고 그 죄를 없애 줘야지.

202-203쪽 예수님: 여보시오! 요한!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 주십시오.

요한: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신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204-205쪽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지금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을 옳은 일입니다. 자, 어서 세례를 주십시오.

요한: 내가 오히려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206-207쪽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생애 (208-211쪽)



| 배경 내용 |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신 후, 제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다니셨어요. 때로는 수백 명,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죠.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몇 개의 빵과 물고기로 배부르게 먹고도 남는 기적을 베푸셨어요.

또 천국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눈 먼 사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이미 무덤에 장사지냈던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욕하며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나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 주기도 하시고, 행실이 바르지 못한 우물가의 여인도 구원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매우 사랑하셔서 늘 가까이 하시고, 천국은 어린이와 같은 사람들이 갈 수 있다고 알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연약한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

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빠도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잊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어요 (212-227쪽)



| 배경 내용 |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은 해질 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셨어요. 많은 일을 하시느라 매우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뒷전에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친 폭풍이 일어나더니 파도가 산처럼 높이 일었어요. 요동치는 파도 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뒤집힐 지경이 되었죠. 광풍을 피해 보려고 애쓰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왜 무서워하느냐”고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바다를 향하여 ‘조용하라’고 명령하시자 바다가 금방 조용해졌지 뭐예요? 제자들은 놀라서 수군거렸어요. “도대체 이분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께 복종하는가?”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12-213쪽 예수님: 애들아, 저 건너편 마을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자.

제자들: 예, 알겠습니다.

214-215쪽 예수님: 몸이 피곤한걸. 잠시 잠이라도 자야겠다.

제자들: 저희들이 안전하게 모실 테니 좀 주무세요.

216-217쪽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출발한 후에 갑자기 잔잔하던 바다에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싹~아~싹! 기우똥! 기우똥! 거센 풍랑에 배가 방향을 잃고 기우똥거리고 있어요.

218-219쪽 우르릉 광~광! 싹아~싹! 엄청난 파도에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220-221쪽 제자들: 아이고! 나 죽겠다! 큰일이다. 배에 물이 들어왔어. 가라앉지 않게 어서 퍼내자.

예수님: 쿨쿨~ 드르렁 드르렁!

222-223쪽 제자들: 안되겠다.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린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잠만 주무세요?

예수님: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야!

224-225쪽 예수님: 바람아, 바다야, 조용히 해라!

제자들: 우와~ 바다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었나봐. 금방 잠전해졌잖아?

226-227쪽 제자들: 예수님은 누구신데 성난 바다도 예수님 앞에 복종할까?

예수님: 애들아,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 마음에 무서움이 사라진단다.

착한 사마리아인 (228-237쪽)



| 배경 내용 |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며 예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다 죽게 만든 후 버려두고 도망갔어. 그 때 마침 한 제사장이 지나다가 피를 흘리며 신음하고 있는 남자를 보았지. 제사장은 그를 피해 길 반대편으로 가 버렸어. 뒤에 한 레위인도 지나가 다 그를 보았어.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살려 달라고 외치는 그 사람을 못들은 척 그냥 지나가 버렸어. 이번엔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 가게 되었어.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하게 여겨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 그리고 자기 말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갔지. 그는 여관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환자를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했어. 만약 돈이 더 들면 다음에 다시 와서 갚아 주겠노라 약속까지 했어. 너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는 동네 사람들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의 행위를 칭찬하시며 우리도 그를 닮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28-229쪽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율법선생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율법선생: 제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단다.

230-231쪽 강도들: 가진 것 다 내놔. 펙! 펙!

강도 만난 사람: 아~ 제발~ 살려 주세요! 아이고~

강도들: 으흐흐~ 웃이랑, 돈이랑 다 내놔라!

232-233쪽 강도들에게 옷과 돈을 다 빼앗긴 불쌍한 사람은 신음하는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강도 만난 사람: 고흘~ 여보시오~ 나 좀 살려 주시오.

제사장: 찌찌찌~ 저 지경이 된 것을 보니 죄를 많이 저서 벌을 받은 모양이야. 죄인을 상대하면 내가 더러워지니 어서 피해야지. 제사장이 불쌍한 사람을 지나쳐 가 버리자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남자: 고흘~ 여보시오~ 나 좀 살려 주시오.

레위인: 저런! 많이 다쳤군. 하지만 난 성전일이 바빠. 어서 빨리 가야 해.

234-235쪽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불쌍한 사람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남자: 고흘~ 여보시오~ 날 좀 살려주세요.

사마리아인: 이게 무슨 소리지? 저런! 사람이 많이 다쳤구나.

236-237쪽 사마리아인: 자, 이 포도주를 마시고 기운을 차려요. 그리고 가까운 여관에 가서 상처를 치료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를 만나 불쌍한 처지가 된 남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이웃이 되기를 바라세요.

잃어버린 어린양 (238-249쪽)



|배경 내용| 바리새인들과 율법선생들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친구로 받아들이고 함께 먹기까지 한다고 수군거렸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 주셨어요.

“어떤 목자가 양 백 마리를 키우며 살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마리 양을 잃었다. 그는 아흔아홉 마리의 양을 들에 남겨 둔 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나섰단다. 목자는 온 산과 들을 헤매며 양의 이름을 불렀지. 어둠 속에서도 목자는 마침내 양을 찾게 되었단다. 그는 기뻐하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이웃들을 초청하여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말했다. ‘제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 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이에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38-239쪽 **바리새인들:** (수군수군) 예수는 죄인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먹고 마시는 이상한 사람이야.

예수님: 어느 마을에 양 백 마리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단다.

240-241쪽 **목자:** 애들아, 이름 부를게 대답해. 양순이, 네! 양돌이, 네! 양미리, 네! ... 꾸러기, ... 어, 꾸러기 없니? 이상하다. 꾸러기가 어디 갔지?

242-243쪽 **목자:** 날이 점점 어두워지는데 꾸러기가 어디로 갔을까? 꾸러기야! 어디 있니?

꾸러기: 야호! 신난다. 내 멋대로 노니가 더 재미있는 걸. 우헤헤~

244-245쪽 **꾸러기:** 어라? 그런데 왜 이렇게 캄캄해졌지? 아이고 큰일 났다. 집에 가는 길을 잃어버렸어. 엉~엉!! 무서워. 늑대가 나타날 것 같아. 엉~엉!

목자: 저건 우리 꾸러기 목소리 같은데... 꾸러기야!

246-247쪽 **꾸러기:** 야~ 우리 아저씨다~ 이젠 걱정할 것 없다. ‘아저씨~이!’

목자: 이 녀석아, 어디 있었니? 널 얼마나 찾았다냈는지 아니?

248-249쪽 **목자:** 애들아, 꾸러기를 찾았단다. 함께 기뻐하자! 내겐 너희들 하나, 하나가 다 소중하단다.

열 명의 문둥병자 (250-267쪽)



| 배경 내용 | 열 명의 문둥병자(나병환자)가 성 밖에서 아주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문둥병이 저주를 받은 몸쓸 병이라 믿었기에 이 병에 걸리면 가족을 떠나 멀리 성 밖에 나가 살아야 했어요. 그들은 늘 굶고, 배고프고, 몸이 아파 슬펐어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만 간절했죠.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시라면 자기들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제사장이 환자의 병이 나은 것을 확인해 주면 가족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자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중에 흉하게 일그러지고 더러웠던 피부가 말끔히 나은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기뻐 소리치며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그 중 한 명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나는 먼저 내 병을 낫게 해주신 예수님께 가야겠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며 감사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은 아홉 사람을 안타까워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50-251쪽 문둥병(나병)에 걸려 온몸이 종기와 고름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고 성 밖에서 한자들끼리 고통스럽게 살아야 했어요.

252-253쪽 문둥병(나병)은 눈이 빠지기도 하고, 힘없이 이빨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땐 아무런 느낌이 없어 손가락이 없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손가락이 다 없어진 사람도 있고, 입이 뭉개져 없어진 사람도 있고,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254-255쪽 아무런 희망도 없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문둥병자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문둥병자: 오늘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은 죽은 사람도 살렸대. 그럼 우리 병도 고쳐주실 거야. 예수님께 가서 병을 고쳐 달라고 부탁해 보자.

256-257쪽 **문둥병자들:** 예수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이 고통스러운 병을 고쳐 주세요, 제발요!

예수님: 참으로, 딱하구나.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258-259쪽 **문둥병자1:** 영차, 영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빨리 가자.

문둥병자2: 이렇게 하면 정말 우리 병이 낫는 거야?

260-261쪽 **문둥병자3:** 그래, 이제 희망이 보이는 거 같아. 빨리 가자.

문둥병자4: 어? 어? 내 몸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 너는 어때?

262-263쪽 **문둥병자5:** 와~ 내 손가락이 멀쩡해졌어!

문둥병자6: 세상에나! 나도 입이 깨끗해졌어!

문둥병자7: 나도! 발이 나왔어!

문둥병자8: 우와~ 정말 내 몸이 깨끗해졌네!

264-265쪽 **문둥병자들:** 만세! 만세! 내 몸이 깨끗해졌어. 신난다! 이제 우리는 문둥병자가 아니다! 야호!

사마리아인: 이게 다 예수님 덕분이야. 난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씀 드려야지.

266-267쪽 사마리아인: 예수님, 제 병을 고쳐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요.

예수님: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단다. 가서 잘 살아라.

열 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을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잃었다 다시 얻은 아들 (268-295쪽)



| 배경 내용 |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가 받을 몫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요. 아들은 아버지가 나누어 주는 재산을 몽땅 가지고 먼 도시로 떠났어요. 그곳에서 그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날려 버렸어요. 돈이 다 떨어지자 아들에게 친한 척하던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그는 외톨이가 되었어요.

그는 먹고 살기 위해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집주인은 그에게 돼지 치는 일을 시켰어요. 그는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난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가서 내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겠다. 그리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일꾼으로 써 달라고 부탁해야겠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갔어요. 차나 깨나 집 떠난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멀리서 돌아오는 작은 아들의 낯익은 모습을 보았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와 반갑게 끌어안고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했어요.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내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68-269쪽 예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리는 사 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 주셨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단다. 큰 아들은 집에서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열심히 일했지만 작은 아들은 그렇지 않았 단다.

270-271쪽 작은 아들은 집에서 농사짓는 것을 따분하게 생각하면서 도시로 나가 살고 싶어 했지요.

작은아들: 아버지, 제게 줄 유산을 지금 미리 주세요. 난 도시에 나가서 살래요.

272-273쪽 아버지: 여기 네 몫의 재산이다. 잘 사용하여라.

작은아들: 해헤헤! 아버지, 바이! 바이!

274-275쪽 작은 아들은 돈을 받고 신나게 아버지 곁을 떠나 도시로 갔어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는 아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버지: 아들아~ 부디 건강하게 잘 지내라.

작은아들: 야호! 신난다. 역시! 내가 살 곳은 시골이 아니라 저렇게 멋진 도시지.

276-277쪽 작은아들: 도시야, 여자들아, 내가 왔다. 나랑 신나게 놀아 보자.

건달들: 우와~ 재 돈이 꽤 있는데~ 돈이 많으니 함께 놀아야지.

278-279쪽 작은아들: 재! 여기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 맘껏 먹고, 맘껏 놀아 보자.

건달들: 자기 멋쟁이! 최고야!

280-281쪽 작은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을 몰 쓰듯 함부로 사용했어요.

건달들은 돈을 얻어 쓰는 재미에 그를 왕처럼 대접했어요.

282-283쪽 날마다 평평 돈을 쓰면서 먹고 마시고 하는 세에 조금씩 돈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돈이 떨어지자 주위에 모여들던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달아나고 말았어요.

작은아들: 어? 어? 돈을 다 써 버렸네! 친구들도 하나도 없네!

284-285쪽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작은 아들은 할 수 없이 도시를 떠나야 했어요.

작은아들: 난, 이제 거지야. 외톨이가 되고 말았어. 이제 어디로 가지? 아~ 배고파! 꼬르륵~ 꼬르륵~ 돼지농장에나 가 볼까?

286-287쪽 작은아들: 아저씨! 저~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일할게요.

돼지주인: 돼지에게 밥은 이렇게 주는 거야. 알았어? 똑바로 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너 먹을 밥은 없어!

288-289쪽 작은 아들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돼지와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와 함께 풍족하게 살던 때를 그리워 했어요.

작은아들: 내 아버지 집의 일꾼들은 풍족히 먹고 지내는데 아들이 난 돼지보다 못한 거지신세구나. 그래,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돌아가서 용서해 달라고 해야겠어.

290-291쪽 작은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혹시 아버지 집에서 아들 대접은 못 받아도 일꾼이라도 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저게 누구지? 사랑하는 내 아들이잖아?

292-293쪽 아버지: 얼씨구나~ 내 아들 맞구나. 아들아! 정말 잘 왔다!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어서 오너라!

아버지는 집을 나갔다 돌아온 아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고 기뻐 춤을 추면서 아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294-295쪽 작은아들: 아버지 제 잘못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그럼, 그럼, 용서해 주고 말고... 다시 돌아와서 난 너무나 기쁘단다.

하나님은 이 아버지처럼 죄를 뉘우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예요.

예수님과 아이들 (296-303쪽)



| 배경 내용 | 예수님 시대에 어린아이들은 숫자에도 포함하지 않음 만큼 무시당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며 존중해 주셨어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제자들은 낮을 찌푸리며 말했죠.

“지금 선생님이 어른들 문제로도 바쁘신데 이런 꼬마들에게 신경 쓸 틈이 어디 있소? 저리 가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짜증을 들으시고 그들을 꾸짖으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란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296-297쪽 아이들: 우리도 예수님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아무도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눈과 귀는 아이들을 향해 있었어요.

298-299쪽 예수님: 애들아, 이리 오렴.

300-301쪽 아이들: 와~ 신난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 어른들하고만
놀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도 놀아 주신대.

302-303쪽 아이들: 히히히!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하하하! 내 꼬마 친구들! 나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04-323쪽)



|배경 내용| 유월절 만찬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겔세마네라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
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하시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간절하게 자신의 죽
음을 준비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기도를 마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있을 때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
과 많은 무리를 데리고 왔어요. 유다가 자기의 선생 예수님에게 입맞추
는 것을 신호로 보내면 칼과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기로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놀라 도망을 쳐 버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뒤따라 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 보았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의회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으로 증언을 했
어요. 그들이 무슨 거짓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묵묵히 듣기만 했어요. 빌
라도는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죽이려는 것을 알고 놓아 주려 했
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계속 처형하라고 외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명령하고 말았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가운
데 십자가를 지고 끌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끌고다 언덕에서 발가벗긴
채 손발에 못을 박혔지요.

대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자기 자
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하며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마치
막으로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라고 외친 후 숨이 멎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가족의 무덤에 장사지내도
록 허락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등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장사지내는 것을 보았어요.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군인들
이 지키게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갈까 두려웠기 때문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온갖 고통을
당하며 참혹하게 돌아가셨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304-305쪽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306-307쪽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곳에 가롯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가롯 유다: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 그를 체포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나를 넘겨 줄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308-309쪽 예수님: 너희가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나를 잡으려고 칼과 몽
둥이를 가지고 왔느냐? 내가 순순히 나아가갈 것이다.

가롯 유다: 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지켜봐야겠어.

310-311쪽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억울하
게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으셔야 했어요.

로마군인: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내 채찍 맛 좀 보아라!

사람들: 흥,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더니 꼴좋군.

312-313쪽 군인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라는 언덕으로 예수님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팡! 팡! 예수님은 십자가에 묶인 채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이 박혔어요.

314-315쪽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섰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누가 차지할지 제비를 뽑았어요.

316-317쪽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때는 아침 9시였어요. 그런데 정오부터 갑자기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어요. 예수님은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318-319쪽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를 치렀어요.

320-321쪽 요셉은 바위를 깎아 만든 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무덤 문을 돌을 굴러 막아 놓았어요. 이 모든 일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지켜 보았어요.

322-323쪽 로마의 군인들은 혹시라도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지 몰라 무덤 문을 굳게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324-331쪽)



| 배경 내용 |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를 바르려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런데 무덤을 막았던 커다란 돌문이 열려져 있었어요.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썼던 천만 남아 있었어요. 놀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여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

어요. “어찌하여 살아 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제야 여자들은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했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알렸어요. 처음에 믿지 못했던 제자들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324-325쪽 **군인들:** 으악! 무덤이 흔들린다. 지진 났나 봐.

326-327쪽 **천사:** 봐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단다.

328-329쪽 **여인1:** 어? 어떻게 된 일이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렸네?

여인2: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누가 훔쳐갔을까? 무서운 일이 생겼나봐!

330-331쪽 **예수님:**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다시 살아났단다.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셨단다.

여인들: 맞아요. 전에 예수님이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요.

고기 잡는 기적 (332-343쪽)



| 배경 내용 |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실망한 마음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서 예전에 하던 고기 잡는 일을 하려고 배를 타고 호수에 나갔어요. 그런데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요.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이 멀리 호숫가에서 계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리치셨어요.

“고기를 몇 마리나 잡았소?”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대답하자 “그물을 배 오른 편으로 던져 봐요. 그러면 잡힐 거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자 그물이 터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그제야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물로 뛰어 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빵과 생선으로 아침식사를 준비해 놓으셨다가 제자들을 먹이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었어요.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332-333쪽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호수에 나타나서 소리치셨어요.

예수님: 애들아, 고기 좀 잡았니?

제자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334-335쪽 예수님: 그럼 그물을 저 오른 편으로 던져 봐라.

제자들: 누군데,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거야?

336-337쪽 제자들: 어차피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한 번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해 보자. ‘쉬익~’

338-339쪽 물고기1: 헉! 이게 뭐야? 내가 그물 속에 있잖아! 어떻게 된 일이지?

물고기2: 얌전히 있어. 예수님이 부르시잖아!

340-341쪽 제자들: 아니! 이런! 그물에 고기가 팍 찻잖아! 영채! 영채! 너무 무거워. 이러다 그물 찢어지겠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큰 물고기를 153마리나 잡았어요. 그제야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부끄러웠어요.

342-343쪽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식사를 준비하시고 제들과 함께하셨어요.

예수님: 애들아, 아침 먹자!

제자들: 맛있겠다!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344-351쪽)



| 배경 내용 |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보여 주셨어요. 사십일 동안이나 땅위에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선물을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시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 자녀와 함께 그림 읽기

344-345쪽 예수님: 애들아,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줄 거야.

제자들: 정말요?

346-347쪽 예수님: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되었구나.

제자들: 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네!

348-349쪽 천사: 여러분! 왜 하늘을 쳐다보고 서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보는 대로 꼭 다시 오실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 꼭 다시 오셔야 해요! 그때까지 열심히 기다릴게요!

350-351쪽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가운데 살아 계셔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보고 계세요.

